

심장병-당뇨병 예측법

대사증후군(metabolic syndrome)의 새로운 기준들로 관상동맥 질환(심장병)과 당뇨병을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영국 글래스고 왕립의료원의 내비드 새타 박사는 미국심장학회(AHA) 학술지 '순환'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다음의 5가지 요인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이 3가지가 넘으면 대사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사람은 장차 심장병과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 허리둘레 101cm이상(남성), 76cm이상(여성)
- 혈중 트리글리세리드 \geq 당 150mg이상
- 혈중(양성 콜레스테롤인)고밀도지단백(HDL) \geq 당 40mg(남성), 50mg(여성)
- 혈압 130/85mmHg이상
- 혈당 \geq 당 110mg이상



새타 박사는 6,2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분석 결과 이 5가지 중 3가지가 해당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향후 4.9년 안에 심장병과 당뇨병이 발생할 위험이 각각 17배, 3.5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 5가지 중 4개 또는 모두가 해당하는 사람은 심장병 위험이 3.7배, 당뇨병 위험은 무려 25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구용 인슐린 임상시험서 효과

합성 전달체로 간까지 활성 변화없이 수송, 에미스페어, 최종 임상 동참파트너 물색중 에미스페어사의 경구용 인슐린제제가 확실한 혈당강하 효과를 발휘한다는 2건의 제 1상 임상시험 결과가 최근 미국당뇨협회(ADA)총회에서 보고됐다.

에미스페어사는 이번 시험결과에 입각하여 다양한 용량의 경구용 인슐린을 투여하는 추가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있지만 단독으로 제 3상 임상시험에 들어가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최종 단계 임상시험에 동참할 적절한 파트너를 물색 중이라고 에미스페어사는 덧붙였다. 지난 4월 에미스페어사와의 임상시험에 동참 의지를 밝혔던 2개사 중 1개 기업이 협상을 중단함으로써 현재 최종 임상계획이 지연된 상태다.


에미스페어의 경구 인슐린제제는 철저하게 인체내 정상적인 인슐린 분비를 모방하여 고안됐다. 에미스페어는 엘리젠 기술을 활용하여 합성 전달체에 인슐린을 흡수시킨 후 경구 투여하면 활성도 등에 전혀 변화없이 간까지 전달된다.

식사를 통해 포도당이 혈중으로 흡수되기 시작하면 간에서 때 맞춰 인슐린이 분비된다고 에미스페어 측은 주장했다.

첫번째 시험은 무작위로 추출된 10명의 제 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인슐린(통상 주사용으로 사용하는 인슐린) 11mg(300단위)과 0.6mg(15단위)을 포함한 2가지 유형의 경구용 캡셀을 복용한 후 효과를 비교했다.

경구용 인슐린을 섭취한 그룹의 혈당치 감소는 혈중 최고 인슐린농도치에 도달한 시점에서 확실하게 나타났는데 각각 27.0±9.0분, 160.5±82.8분에서 최고 혈중농도가 기록됐다. 상대적인 경구용 인슐린의 생물학적 효력은 복용 1시간 후 20%로 조사됐다.

두번째 시험은 20명의 제 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경구용 인슐린이 밤을 세웠을 때 즉 공복시 혈당에도 효과를 발휘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결과 C단백치가 평균 24%감소함으로써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음이 확인됐다. 혈장 인슐린은 농도는 평균 33% 줄었으며 혈중 포도당 농도는 6% 떨어졌다.

에미스페어사는 경구용 인슐린을 복용하더라도 체내에서의 정상적 인슐린 분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장기 투여에도 안정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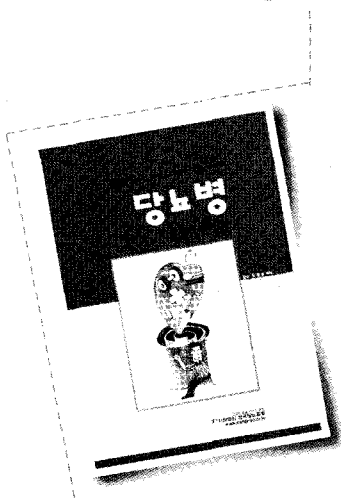
(사)한국당뇨협회에서 전해주는

「당뇨병」의 발병에서 치료까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사단법인 한국당뇨협회에서는 '국가관리 만성 질환'으로 당뇨병을 정해 당뇨병의 조기 발견과 올바른 관리 및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 1998년부터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지원받아 당뇨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하게 된 「당뇨병」은 당뇨병 발병에서 치료 및 예방까지를 총망라해 당뇨병과 당뇨병관리를 위해 알차게 준비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당뇨병은 불치의 병이 아닙니다. 얼마나 관리하느냐에 따라 건강한 사람 못지않게 건강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뇨관리 지침서인 「당뇨병」과 함께하세요.



「당뇨병」

「월간당뇨」